

봄철 안전 운전

● 엔진 오일

겨울용 엔진 오일(10w, 20w)을 넣었다면 교환해 주어야 한다. 오일의 교환 주기는 일반적으로 3,000~5,000킬로미터 정도 주행 시마다 교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나 차거운 날씨에 단거리 운행 또는 먼지길, 정차와 출발의 빈도가 잦은 경우, 비포장 도로나 언덕길의 주행, 저속 기어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 등은 가혹한 운행 조건이므로 교환 시기를 단축해야 한다.

또한 오일 게이지를 이용한 정상 점검시 교환 시기가 되지 않았는데도 최소선까지 내려가 있으면, 이는 엔진 오일이 과대하게 소모되고 있는 현상이므로 차량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엔진 오일은 다른 제품의 오일을 사용하게 되면 오일내에 포함된 화학약품끼리 서로 화학 반응을 일으켜 오일의 변질을 가져 올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자동차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제품중 동일 제품으로 교환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 냉각수

동절기에 사용하는 부동액 중 반영구 부동액은 운전 중 비등,



즉 끓어오르는 일이 있으므로 여름철에는 사용이 곤란한 반면, 영구 부동액은 비등할 염려는 없으나 특수 방청제를 사용한 제품을 제외하고는 냉각수를 중화시키기 위해 수용된 중화제에 의해 부식이 된다. 따라서 봄철이 되면 부

동액을 완전히 배출시켜 세척한 다음 깨끗한 물로 바꾸어 주는 것이 좋다.

● 공기 청정기

공기 청정기(Air cleaner)내의 엘리먼트는 엔진 내부로 공기와

같이 흡입되는 먼지 및 이물질을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 엘리먼트가 오염되면 엔진의 흡기 과정에서 공기와 함께 들어오는 이물질은 피스톤 링, 실린더 벽, 피스톤 밸브 등을 마멸 시키며, 엔진 오일이 혼입되면 베어링 등 각 윤활부의 마멸을 촉진시키며, 깨끗한 공기를 충분히 흡수할 수 없으므로 불완전 연소되어 유해 배출가스의 과다 방출과 함께 출력 부족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므로 시기에 관계없이 봄철이 되면 엘리먼트를 갈아주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공기 청정기는 주행 거리에 따라 점검하고 정비하게 되는데, 보통 건식 공기 청정기는 1,500~3,000 킬로미터마다 점검, 청소하고 2,000~3,000 킬로미터 주행후에는 엘리먼트를 신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 기화기의 공회전 조정

봄철이 되면 기화기(카뷰레터)의 공회전 상태를 확인, 조정하는 것이 좋다. 기온이 올라가면 엔진 상태를 고려하여 반드시 시동이 꺼지지 않을 정도의 최저 속도로 조정하여 공회전 상태에서의 연료 소모를 줄이는 것이 좋다.

조정 방법은 카뷰레터의 공회전 조정 스크루(Screw)를 조이면 혼합기가 적게 들어가고, 풀어주면 많이 들어가게 되므로 최저속도로 조정하여, 10% 정도까지 연료를 절약할 수 있다.

● 점화 플러그의 청소

점화 플러그(Plug)는 엔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보통 5,000 ~ 8,000 킬로미터 주행하

고는 점검하여야 하며, 20,000 킬로미터 주행 후는 신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으며, 어느 하나라도 이상이 있거나, 성능이 떨어지면 4개 모두를 교환하는 것이 좋다.

● 브레이크

브레이크 오일의 양을 살펴 새는 곳이 있는지 확인하고, 새는 곳이 없는데도 오일이 부족하면 라이닝(lining)이 마모된 증거이므로 라이닝을 교환해야 한다. 페달을 밟았을 때 유격이 커져 있거나 핸드 브레이크의 레버가 많이 올라와 있다면 일단 라이닝의 마모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드라이브시 내리막길 등에서 브레이크를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 브레이크 슈와 드럼이 열을 받아 휠 실린더가 과열되어 브레이크 액이 끓어 올라 페달을 밟아도 브레이크가 듣지 않게되는 '베이퍼 록 현상'이 나타나거나, 브레이크 라이닝이 열을 받아 마찰계수가 줄어 들면서 미끄러져 브레이크가 듣지 않게 되는 '페이드 현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풋 브레이크 대신에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해야 하며, 내리막길 등 비탈길이 많은 곳에서의 운행이 잦은 차량은 브레이크의 성능을 수시로 확인하고 1년에 1번은 브레이크 오일을 교환해 주는 것이 좋다.

● 기타

스노우 타이어는 깨끗이 손질하여 그늘진 곳에 세워서 보관하고, 떼어 놓았던 일반 타이어로 교체한다. 이때 타이어의 고른 마모를 위해 앞에 달았던 왼쪽 바퀴는 뒷쪽의 오른쪽에, 앞쪽의 오른쪽에

달았던 바퀴는 뒤쪽의 왼쪽에 끼우면 휠 밸런스의 타이어 마모도를 고르게 하는 한편, 타이어의 정렬도 바르게 된다.

또한 각종 오일이나 냉각제의 적정량을 확인, 새는 곳은 없는가 점검하고 전기장치도 확인한다. 특히 배터리를 점검하여 적정선까지 보충해 주고 터미널 등의 오물을 제거한다.

● 카뷰레터 아이싱 현상 (Carburetor icing)

봄철 아침이나 고속도로 주행시 대기온도가 5~10°C 정도이면서 습기가 많은 날 시동이 꺼지는 현상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는 카뷰레터 내부에서 휘발유의 증발로 인해 빙점 이하로 냉각되어 공기 연료의 혼합 증기가 엔진 연소실로 들어가는 통로를 막아 시동이 꺼지는 것이다. 이때 당황하여 엑셀레이터의 페달을 밟아주면 카뷰레터 노크 현상으로 시동이 더욱 어려워지므로 잠시 기다렸다가 재시동을 걸어야 한다.

● 춘곤증(春困症)

봄이 되면 인체의 긴장이 풀리고 혈관이 확장되어 신진대사가 느려져 쉽게 피로를 느끼며, 신체 반응도 둔해진다. 따라서 과로를 피하고 충분한 수면, 영양 보충으로 춘곤증을 극복해야 하며, 운행 중에는 자주 차를 멈추고 가벼운 운동으로 혈액 순환을 돕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도록 한다. 또한 계속하여 눈을 움직이고 차창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소통시켜 환기를 시키고, 2시간 정도 운전후에는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한다. ☺